

제 68 호

사순절 제 3 주일

1974. 3. 17

#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 【강론】 사제양성, 누구의

### 일인가?

안복진 신부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목자없는 양과도 같이 시달리고 지쳐버린 군중을 보시고 그들이 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라고 청하십시오”— (마태오 9: 35-38)

우리들이 살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다양화된 시대입니다.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적응될 수 있는 사목의 방향 역시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지금처럼 추수할 것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더우기 곤란한 문제는 본당에조차 사제가 없는 곳이 두군데(순창, 대야)나 된다는 우리 교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앞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합피되는 사제성소입니다. 이러한 일들보다 더욱 근원적인 문제는(사제양성)이라는 우리의 지상 과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사제양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사제가 태어나는가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신학교에 보내면 모든 것은 끝난다고 생각해 온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적금을 들고 빚을 얻어 켈달 알면서도 사제양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지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구의 사제양성을 위한 경비가 외국의 은인들에 의해서 조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라도 외국의 도움만으로 사제를 양성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사제성소 개발을 위해서는 물론 은퇴 신부님들의 안정된 생활대책 문제는 그중 가장 급선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사제양성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72년말부터 2,000만원을 목표로 애써왔지만 오늘 현재 교구 31개 본당 가운데 11개 본당만 참여한 이 사업이 930만원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성년인 이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사」고 청하시는 일에 힘쓰시다. (사제양성 후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본당 신부님이나 사도회 임원들에게 문의하십시오.)

〈교구 성소 지도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내 발을 울무에서 뽑아 주시기에, 언제나 나의 눈은 주를 향하여 있나이다.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외롭고 가난한 이 몸이이다.

###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출애 3: 1-8a, 13-15, 경향잡지 3월호 P. 53) “내가 있노라”(야훼)하시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증계송** ◎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니 죽음에서 네 생명 구하여 내시고, 은총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제 2독서** (고린토전 10: 1-6 10-12 성서 P. 386)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 □복음 전 노래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 하라.

### □복음(루가 13: 1-9, 성서 P. 166)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지금은 당신의 은총이 충만한 성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큰 뜻을 배워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소서. 주여, ...

2. 주여, 세계의 평화는 내 안에서 부터, 내 가정에서 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우리 모두 나와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

3. 주여, 내 본당과 교구의 평화를 위해서도 힘쓰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장하기 보다는 무엇을 하게 하소서. ◎

+ 우리가 올리는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행실이 밀밭 칠이 되지않고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제송** 참새도 짙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사와도 내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나이다. 만군의 주시여, 내 입금님, 내 하느님이며,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되오니, 길이 길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 (4) 폐회식

## ✽순정이 산책✽

고기가 살게 물을 넣어 줍시다



### 미 사 포(布)



박진량 신부

고린토 전서 11장1절~16절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지론(持論)이 나와 있다. 그 중에 한 귀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가 기도를 할때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때에 자기의 머리를 무엇으로든지 가리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위의 성경말씀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그 시대 고린토인들에게 내린 행정적 지침이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여성들은 「한국 천주교 지도서」 195조에 규정한대로 공식적인 예식 특히 미사때에 「미사포」로 머리를 가리운다. 왜 그럴까? 위에 쓴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일까? 요즈음은 일반 예식장에도 구수(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面紗布)로 머리를 가리운다. 또 석양에서는 여자가 정복차림을 할때 으레 모자를 쓰며, 그것은 실내에서도 벗지 않도록 되어있다.

옛날 희랍 사람들의 풍습에 따르면, 머리를 가리우는 것은 「자기는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의 신분임」을 표시했다고 한다. 예속되어 있다는 표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그러한 풍습의 속뜻을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시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즉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기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리워야 한다」고 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바로 그다음 귀절(1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주님을 믿는 세계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있고 남자도 여자에게 속해있습니다」

아무튼, 여자들이 미사포를 쓰고있는 광경을 보면, 한층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들고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풍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것이 하나 있다. 어떤 분은 어쩌다가 미사포를 가져오지 않아서 영성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소뿔을 고치려다가 아예 소를 잡는 격」이다. 미사포는 뭘수있는데로 가져와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없더라도 함당한 마음준비를 해서 영성체는 꼭 해야 할 일이다. <가톨릭 센터 관장>

### 사랑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영남(마르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을 더 해가고있는 현 시점에서 금년도 일치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교파들간의 일치를 위한 공동 연구회를 발족하여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가하면 각 교파 지도자들간의 예전에 없던 상호방문에 의한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까운 이웃과 공동체 모임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기에 저의 작은 소망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훌륭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안에서 사랑의 대화가 필요하겠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린토 전서 13장에서 「내가 인간의 말을 다할수 있고 천사의 말까지 할수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은 참아주고, 친절하고, 시기하지않고, 교만하지않고 무례하지않고, 성을 내지않고, 앙심을 품지않고, 사랑은 모든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 하나가 되려면 먼저 내가참고, 견디어 낼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하고, 나를 알수있고, 나를 믿을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서 남을 용서할수있고, 하나가 될수 있는 대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의 힘을 얻어 겸손한 태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여 남을 용서하고 도움으로써 남을 받아들일수 있고 나의 의견도 건설적이고 건설된 말로써 상대방 위치가 어떠한 입장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대화를 나누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할수 있고, 모범된 행동으로 실천할때에 이웃과 또 내가 가담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가 될수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담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여 나를 희생시키므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들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와 온세계의 번영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가 되고자 하나이다. 우리안에 언제나 계시 주십시오」 <덕진 천주교회>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트프



仔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07692(진북동 어은골)

\* 교형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어판 앞 전화 06094

귀가 잘 들리지 않은 분에게 희소식!

- 보청기(補聽器) 입하
- 의료기계 ● 학교실験기계

### 동남의료과학기계상사

전화 04367 (법원-의과대학 중간)

양 지 쪽

『글 세 요』

김 길 수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입장에 설 때 「글세요」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결정해야 될 때 「글세요」 해버리면 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쫓기는 서공(鼠公-취세끼)들이 고양이 목에 위협신호의 종을 다는 아이디어까지 생각해 냈지만 종을 달아야 되는 행동의 모험이 수반되었을 때 누가 감히 그 종을 고양이 목에다 거느냐 하고 물으니 모두가 「글세요」로 응수함으로써 그들의 모처럼의 기지(機智)가 무용론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하여 서공들은 고양이 앞에서 영영세에 전전공공의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는 약육강식의 비극적인 역사를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교훈중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다 (루카 4장.15절), 임금님 나라에 큰 잔치가 벌려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자진해서 오지않았다. 종들을 시켜 길가는 사람들에게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하고 전하게 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글세요」 내가 발을 샅기 때문에 불가불 발에 가야하오. 또 다른사람 역시 「글세요」 소 다섯 필을 샅으니 그것들을 부려봐야 하오, 혹은 장가가야 되는데, 「글세요」하고 가지각색의 변명을 했다. 화가난 집주인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길거리의 가난한 사람, 불구자, 맹인, 철름발이 등을 모두 불러 들이라고 명령했다. 주인은 이르기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구나」하고 일축했다는 이야기이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우리는 신자 생활에는 이 「글세요」의 요소가 너무도 많다. 예수님은 차라리 신앙생활에 있어 「예」 혹은 「아니오」(마태 5장.37절)로 대답하거나 거절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차거나 덤지아니하고 미지근 할 때 토해 버리겠다 하지 않았던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실마리가 「글세요」의 소극적 태도로는 풀리지 않는다. 소극적인 삶의 생활 태도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신앙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은 항구적인 결단이요, 의지의 싸움이요 전진의 역사이지 기분과 감정속에 사로잡힌 환상적인 「글세요」는 아닌 것이다.

<가톨릭시보 기자>

요십이 (35) 김병오

엄마 학교가게 빨리 밥주세요  
국은 다 되었는데 밥이 아직 양이 없구나

국만 먼저 먹게 빨리 주세요  
이건 국과 반찬이다

국맛 좋네요  
밥이 이제야 되었구나

너 학교 안가고 무엇하니  
밥과국이 땀속에서 혼합되라구요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상임간사 안 지은, 전화 ②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 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 이 주간의 성경 \*

- |  |   |
|--|---|
| 18(월) 성 치릴도 주교 학자<br>독서(열 왕 후 5: 1-15a)<br>복음(루 가 4: 24-30, 성서 P.133)                  | 21(목) 독서(예 레 7: 23-28)<br>복음(루 가 11: 14-23, 성서 P.159)         |
| 19(화) 성 요셉 대축일(전주 주교 서품)<br>독서(사 무 후 7: 4-5a.12-14a. 16)<br>복음(로 마 서 4: 13, 성서 P. 345) | 22(금) 독서(오 세 14: 2-10)<br>복음(마 태 오 12: 28b-34, 성서 P.107)      |
| 20(수) 독서(신 명 4: 1. 5- 9)   | 23(토) 성 뿌리비오<br>독서(오 세 6: 1- 6)<br>복음(루 가 18: 9-14, 성서 P.179) |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 닭 · 염소 · 야생동물 일체 ◎

화 랑 상 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② 6C91(교환) 108

전주에도 홍보활동 전개

가톨릭 출판사 홍보회에서는 본사 발행 신심 서적을 보다 널리 적극성있게 보급코자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각 본당 단체 및 교우가정을 배방하여 하늘의 빛과 진리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교우들의 신심 생활에 도움되기를 힘쓰고 있사오니 하느님사업(문서전교)에 힘주시는 뜻으로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홍보회원 이 철, 한 중원, 이 수복)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철 전문)

대 동 페인트 물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② 5986  
임 정 원 (도민고)

###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 1.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집시다.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은 우리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성년을 당해서 교구에서 전교구적으로 벌이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지금까지의 국인들의 도움으로 양성해온 이 사업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신학생 양성이나 은퇴신부님의 생활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72년말부터 벌여온 이 사업은 2,000만원 기금 목표액 가운데 900여만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구 31개 본당 가운데 겨우 10개 본당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한가정도 빠짐없이 이 사업에 참여합시다.

#### ■ 사제 양성 후원 기금 예약 현황 ■

누계 9,326,400원	남원 본당 150,000원	대야 본당 200,000원	복자 본당 1,265,000원
김제 본당 100,000원	전동 본당 1,840,000원	정음 본당 500,000원	중앙 본당 2,519,000원
서학동 본당 752,400원	월명동 본당 750,000원	화산 본당 250,000원	(1974. 3. 15현재)
진안 본당 1,000,000원			

【순】

【식】

#### 2. 프란치스코회(노송)성당 신축 기공식 (3월 19일)

오후 3시 30분 미사, 오후 4시에 머릿돌 축성식이 있습니다.

#### 3. 매주 금요일 성년 행사

특별 고백성사 실시(오후 3시-5시); 복자성당 오기순 신부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 4. 학생 레지오 마리에, 학생회 및 학생 셀 간부회의

(3월 17일. 해성학교 종교감실: 오후 2시)

교구단위 및 본당 단위 간부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원들도 참석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 신부 박창석  
 사도 회장 이복석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오늘 공식 미사후)  
신부님의 수고와 업적을 감사드리며 많은 기구드립니다.
- 교무금 납부(납부 성적 25% 3월 15일 현재)  
1974 회계년도가 절반이나 경과했습니다.  
교회 유지를 위한 우리들의 성의를 더욱 발휘하시어 3월중엔 반액 이상 봉헌 합시다.
- 사제 양성 후원 기금(매일 신용조합에 불입)  
아직 신입금을 적금 불입치 않으신분 많습니니다.  
적극성을 띄웁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39,286원, 감사 합니다.

【복자】

전화 ⑤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성 요셉 성월,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미사후) 합동으로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성미에 알뜰한 정성을 바랍니다
- L.M 피미시움 회합(전동: 오늘 오후 1. 30분)
- 사제 양성 후원금을 제달에 완납 하십시오
- 주일 봉헌금(감사와 속죄의 길로 정성껏)
- 주일 학교 교리에 적극 협조(3월 3일부터 시작)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미사참례자수 10시; 367명, 저녁 115명  
합계 482명  
지난주일 성미 2말 7되 누계 262말 9되  
지난 주일 봉헌금 14,08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철

- 교우 여러분께서는!  
하느님의 공전을 신축하는데 적극 협조합니다.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기증 약속(성모상): 무명, 쌀 한가마(13,500원): 황운공소, 약속금(엠프 구입) 5만원: 소귀레(모니까), 3만원: 임종환, 만원: 유경자, 5천원: 임종섭, 송수산나 한말지나(작은 형제회원), 3천원: 최양금, 2천원: 최웅권, 이대환, 이일순, 천 5백원: 탁봉애, 천원: 배금순, 최인화, 오인순, 무명 학생, 하부근 5백원: 박골름바, 안병규, 김진욱  
 지난주 신축기금 8,7500원 누계 846,750원  
지난주 신축성미 3말 누계 148말 4되  
 지난 주일 봉헌금 14,900원, 감사 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가정방문 (18(월): 13번)
- 사도회 전원 성년. 순례 성당 참배(15(금): 했음)
- L.M 전단원 성년 순례 성당 참배 예정(22(금) 단원외의 교우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소 일정  
20(수): 의암, 마치리 21(목): 신흥, 백암, 22(금): 서당, 내정; 복재, 23(토): 마을리, 성덕래 28(목): 외어두리, 석장리, 29(금): 내어두리, 30(토): 신리, 색장리.
- 공소시에 교무금 준비해 주십시오.
- 신용조합 이사회 (25(월): 저녁 8시)
- 신용조합 월례회 (27(수): 저녁 8시)  
 지난 주일 봉헌금 10,481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공식 미사후: 친 인원참석)
-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24) 공식 미사후)  
조합원의 전원 참석을 바라며 (조합원에 한해서) 참석 하신분에게는 부권 1매씩 드립니다.
- 공소 불 판공일정  
26(화): 전당리, 27(수), 마산리, 28(목): 내동리, 29(금) 동산촌
- 애령회 기금조성 성미 모금운동(지난주 성미 1되)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중·고등 학생회 정기총회 (다음 주일(24))  
학생들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지난 주일 봉헌금 8,96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예비자 교리(매주공식, 저녁, 수요일저녁미사후)
- L.M 피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 30분)
- 주일 학교 일일교장(백(토마스)종흠 선생님) 수고 해 주십시오.
- 부녀부 소식(매주 토요일 저녁 미사(어머니)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부 성금 2되 현금 21,265원  
애령회 현금 8,5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4,825원, 감사합니다.